

3. 중북관계 전망

당분간 북중 정상회담 개최 개연성은 미약함

- 김정은의 전략적 오판, 미숙성, 대담성 등이 추후 한반도 안보정세에 더 큰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야기할 개연성이 크다는 판단이며, 중국에 대한 존중이 없는 김정은에 대해 교훈을 주겠다는 의지는 분명
- 중국은 북한 비핵화문제에 대해 완강히 북한의 전향적인 조치 요구하고 있으나, 최근 중러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안정" 유지로 그 요구조건을 낮추는 조짐이 있어 주목할 필요 존재함
- 북한은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을 우려하여 경제 다변화를 시도 중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은 물론이고 대중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북핵 개발을 완성할 뜻을 내 비치고 있어, 중국 측이 당혹해 하고 있음

중국은 '최인의 딜레마' 상황에 직면해 있음

- 한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과는 별개로 북한과 전통적인 선린우호관계를 잘 추진하면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 북중 지도부는 현재 기 싸움중이나, 북한이 지나치게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방지하려 할 동인이 크기 때문에 2015년 들어 대북 인적교류 강화 및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다만, 그 선택권은 북한이 쥐고 있는 상황임. 최근 시진핑 주석의 동북 사찰 등 점증하는 압력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대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선 대북정책

- 중국은 북한의 도발이나 북한 내 돌발 상황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에 대한 압박과 관리를 병행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흘림으로써 상대방의 행동을 억제. 이 경우,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될 것임
- 중국 내에서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크게 배가되어 있어,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측과도 논의 및 교류하고자 하는 인식이 크게 제고되고 있음
- 중국의 동관(東管)·서진(西進) 전략 추진은 전반적으로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남북한 모두 어떻게 중국의 북한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내느냐가 새로운 외교적 도전이 될 것임

북한은 전략적 가치 재상승 이후 중미대화 추진할 개연성 다대

- 시진핑 외교의 탈미국화 현상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충돌로 미중관계가 악화되면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오히려 상승하는 효과가 존재
- 북한의 도발은 중국을 곤혹스럽게 하면서도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상승하게 하는 효과 존재. 따라서 북한은 전략적 도발 및 THAAD 등과 같은 사안에서 미중 간의 갈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유도하려 할 동기가 강함
- 북한은 핵개발을 완성하여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상승시킨 이후 중미와 본격적인 대화를 시도하려 할 개연성이 커지고 있음

시진핑 외교의 탈미국화 현상

북한은 전략적 도발 및 THAAD 등과 같은 사안에서 미중 간의 갈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유도하려 할 동기가 강함

발행처: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발행인: 김흥규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출판권 527-2호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전화: 031-219-3861

홈페이지: www.ajoucp.i

China Watching은 중국의 외교·안보 분야를 전문영역으로 하여 최신 현안을 분석하는 자료입니다.

CHINA WATCHING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Ajou China Policy Institute
亞洲大中國政策研究所

시진핑 시기 북중 관계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

2015. 8. 10 <제7호>

정책 제언

박근혜 대통령 9월 3일 전승 기념식 때 방중 추진.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기로에서 있으며, 중국의 정책 투입과정에 적극적인 개입 요망

- 중국의 전략사고는 진화하고 있고 정책 참여자는 세대교체 중임. 중국의 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공간의 적극적인 확대 노력 강화
- 중국은 기존의 한반도 적극 개입(唇亡齒寒)론과 새로운 관리중심(東管西進) 전략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가는 양태임
- 향후, 중국의 대외정책은 한국에 대한 기대치는 낮추면서 대 북한 관리강화 추진하고, 한반도 변수의 영향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 전개할 개연성 증대
-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이 이 기로에 선 시기에 대중 발언력을 크게 제고시킬 것이며, 현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연미화중(聯美和中) 전략에 부합함

중국의 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공간의 적극적인 확대 노력 강화

중국과 대북정책을 적극 공모하여(聯美協中) 북한의 변화방안 모색 추진

- 한중은 각기 최인의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음
- 안미경중(安美經中)과 같은 정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로 새로운 중국과의 관계를 잘 다루어 나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비현실적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해야 대중관계를 잘 가져갈 수 있다는 이명박 시기의 주류사고도 시대착오적임
- 한중의 대북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전략적 이해가 일치하는 상황임. 한국은 북중관계를 동맹 및 특수관계로, 중국은 한미동맹을 정적으로 인식하는 전제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함
- 대북문제는 전통적 안보차원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임. 비안보적 접근을 통해 안보 문제를 해소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한 시점임

한국은 북중관계를 동맹 및 특수관계로, 중국은 한미동맹을 정적으로 인식하는 전제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함

중국 실크로드 구상이 대 북한 개발로 연결되도록 노력

- 새로운 실크로드 전략에서 동북아 라인은 아직까지 구상에 없는 상황임
- 중국의 새로운 실크로드 구상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창조적으로 결합시키려는 노력을 적극 전개해야 함
- 한중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상호 긴밀히 결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중국의 동북 3성과 대북 경제사업에 협력 강화, 개성공단의 국제화, 신의주-단동 경제개발 사업에 중국과 합작, 나-선 개발에 중국과 공동으로 진출하여 북한과의 경제 협력 강화 노력이 필요함
- 한국의 대북 접촉 강화 및 관계 개선을 위한 설득작업이 꾸준히 전개되어야 함
- 단, 단기적으로는 국제공조를 유지하는 것을 더 중시해야 함. 우리가 먼저 나서서 5.24 조치 등 대북 국제 공조를 파기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은 추후 우리 외교에 부메랑으로 돌아 올 개연성 다대

문제 제기

1. 후진타오 시기의 대북정책

제1차 북한 핵실험(2006)과 '안정' 중시의 대 한반도 정책 확립

-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을 계기로 내부 토론과정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 북한정권의 붕괴방지(한국에 의한 통일 억제), 비핵화의 순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자리매김하였음
- 이러한 정책우선 순위는 후진타오 시기 '발전도상국'이라는 자아정체성에 입각한 사고를 반영하고 있음. 당시 중국 지도부는 경제발전을 국가의 최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외교안보 정책은 봉사해야 하며, 대외적 불안정 요인을 억제하고, 불필요한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국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었음
- 중국은 또한 당시 북한의 핵 보유 의지와 기술적 능력을 과소평가하였고, 오히려 취약한 북한정권의 붕괴가 가져올 비용에 대해 더 우려하였음. 따라서 당시에는 북한에 의한 '연루'의 위험과 폐해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할 수 있음

2009년 제2차 북한 핵실험이후 '연루'의 위험성을 인식하며 보다 적극적인 관여정책을 채택함. 중국은 이 실험을 계기로 북한의 핵개발이 단순히 대미 협상용이 아니라 실제 핵무장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하게 됨

- 북한의 핵문제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놓고, 북한에 대한 접근력과 영향력을 강화하여 북한의 개혁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을 정리함 (북핵문제와 북한문제의 분리 접근 방침)
- 동시에 북핵 문제로 인하여 중국이 연루되어 국익에 심각한 손상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현실적으로 인식

2010년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의 발생은 중국으로 하여금 한반도의 불안정이 자국의 발전과 이익을 침해하고 중국이 북한에 연루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크게 증폭시킴. 이러한 위기의식을 반영하여, 새로운 대한반도 정책으로 3불(不戰, 不亂, 不統) 1무(無核)의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 북한정권의 붕괴방지(한국에 의한 통일 억제), 비핵화의 순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자리매김

당시 중국 지도부는 경제발전을 국가의 최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외교안보 정책은 봉사해야 하며, 대외적 불안정 요인을 억제하고, 불필요한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국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전략적 판단

새로운 대한반도 정책으로 3불(不戰, 不亂, 不統) 1무(無核)의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

2.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과 북중관계

중국은 정상적인 국가관계의 관점에서 국가이익에 기초한 대한반도 전략을 구상

- 중국은 강대국이고 남북한은 약소국으로서 중국의 국가이익을 존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사고
- 북한과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추진한다는 방향은 이미 후진타오 시기에 정해졌으나 시진핑 시기 들어 이를 관철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고히 함
- 최근 중국 내부의 대한반도 전략사고 변화를 보자면, 기존의 지정학적인 사고를 넘어 점차 지경학적인 사고의 확대, 세계 전략적인 차원에서 지역 중견국인 한국의 전략적 가치 재발견(거점국가론)경향 강화

중국의 한반도 균형자 역할 필요성 증대 전망

- 중국은 기존의 북중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던 시각에서 벗어나 한중관계를 보다 독립적인 시각으로 인식. 2014년 시진핑 주석은 북한을 방문하기 이전에 한국을 방문하였고, 북한 중심으로 한반도를 이해하던 사고에서 분명히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정상적인 국가관계의 관점

- 남북한에 대해 보다 균형 있게 접근하고, 남북한이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도록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균형자 역할을 통해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접근법으로 전환
- 중국은 이러한 접근법을 통하여 미국과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중립화를 추동하려 노력

북핵 문제 및 핵안전 문제의 부각, 새로운 통일관의 부상

- 시진핑 시기 들어 한반도 비핵화가 대 한반도 정책의 첫 원칙으로 부각. 기존에는 안정과 평화이었고, 비핵화 문제는 가장 나중이었음
- 북핵 문제의 해소 없이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가 어렵고, 한국은 안보문제로 미국의 이해에 결박당할 수밖에 없으며, 중국은 북한의 이해에 연루되어 미중 및 한중 관계가 취약해지는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는 인식이 증가함
- 2014년 2월 현역 공군 중교(中校) 왕상이 작성한 제등계획(조선반도 전략보고서) 내용이나 전 난징군구 부사령관 왕홍광 장군(국가이익중시)과 전 국무원발전연구중심 한반도센터 주임 리둔치우(전통관계 중시) 사이 대북정책 논쟁에서 보듯이, 전과는 전혀 달리 중국 군부측이 오히려 대북 강경 입장 표명
- 과거에 비해 한반도 통일에 더 긍정적인 사고로 진화 중
- 이러한 사고 전환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하는 2021년까지 중국 통일에 극적인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진핑의 노력과도 연계되어 있다고 보여 짐

북중 간 관계 재구성하려 노력중임

- 북한은 전략적 동업자라기보다는 강대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는 약소국이라는 인식이 더 강화. 약소국인 북한의 외교에 강대국인 중국이 이용되거나 불필요하게 연루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취함
- 중국 중앙대외연락부가 전통적으로 주관한 대북 문제도 이제 외교부로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음
- 중국의 이익을 위배하는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비용을 증가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 주고 있음
- 대한반도 정책의 마지노선(底線)과 Red Line(紅線) 설정. Red Line은 전쟁방지이며, 마지노선이란 사안 별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최악의 상황을 회피하도록 하는 대비를 말함

북한에 대해 압박 위주, 유화 정책을 보조로 한 병행 전략 채택

- 북핵에 대한 전향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중북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표명
- 북한 에너지 공급에 대한 압박과 접경지역 군사훈련 강화
- 북핵 관련 대북 제재조치 목록 확대
- 대규모 국가 단위 경제협력 자제. 단, 소규모 및 민생차원의 교류는 허용하였고 최근 들어 지방정부 차원의 경제협력은 허용하는 유화책 허용
- 지역 경제 차원에서 북중 간 경제적 상호 의존성은 심화
- 단, 2014년 11월 전후 중국 내부회의에서 북한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전략은 중국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공감대 형성하면서 대북 유화정책도 병행
- 2015년에 실무접촉을 강화하여 북한에 대한 설득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9월 3일 전승절 기념행사에도 김정은 위원장 초대